

[러시아, 2013년 2월] [수산물]

1. 관할지역, 현장 이슈

▶ 러시아, 어류 수입관세율 인하

유라시아경제협력체 결정에 입각하여 2013년 1월 1일부터 일부 어종 및 새우의 수입관세율이 인하됨. 유라시아경제협력체는 이미 가을에 일부 새우와 새우제품(1차 비진공포장도 포함)의 수입관세율을 관세가의 17%(단, 1kg당 최소 0.34유로)까지 인하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는 러시아의 WTO 가입에 따른 의무이행으로 채택된 것임. 이외에, 신선 및 냉장 미국대구(saithe)와 열빙어의 경우, 단일관세율은 관세가의 10%에서부터 0%까지 인하됨. 신선 및 냉장 대구와 해덕의 경우, 수입관세율은 201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간 10%에서부터 5%까지 인하됨

2012년 1-11월간 신선 혹은 냉장 대구, 해덕, 열빙어, 미국대구의 수입은 전년 동기대비 3배 증가하여 1.8천 톤에서 5.5천 톤까지 늘어남. 주로 북부어장에서의 자국산 열빙어 어획량 감소(26.5%)의 결과로 냉장어류 수입은 증가했으며 즉, 노르웨이산 열빙어 수입이 6.6배 증가하여 810톤에서 5,322톤까지 기록함. 또한, 자국산 대구(6.2%), 해덕(2.9%), 미국대구(46.2%) 어획량이 성장하고 국내시장 공급이 증가한 가운데, 냉장대구 수입은 4.2배 감소, 해덕 4.1배 감소하고 수입산 냉장 미국대구는 아예 국내시장에 들어오지 않았음. 총체적으로 자국어류시장은 신선 및 냉장어류 부족현상을 겪고 있으며, '양식업'연방법이 채택되면 신선 및 냉장어류 감소를 촉진할 수도 있음

▶ 러시아, 어류 수입 줄일 계획

러시아는 2013-2014년간 어류제품 시장에서 수입대체를 급증시킬 수 있음. 우선 청어와 고등어, 연어류 및 그 가공제품 부문에서 가능할 수 있음. 심지어 연어류 수입관세율이 2017년에 10%에서부터 3%까지로 인하함에도 불구하고 가능하다고 평가됨. 하지만 이러한 경향들은 복합적인 어류가공발전프로그램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러시아시장에서 자국 및 해외비즈니스 간에 공평한 경쟁이 보장되어야 함

▶ 한국, 러시아산 신선명태로 이동

한국의 소매업체들은 러시아산 신선명태 구매를 증가시킬 계획임. 러시아산 신선명태는 후쿠시마-1 원전사고로 인해 감소된 일본산 명태를 대체하게 될 것임

2001-2003년간 한국어민들은 한국수역에서 명태를 200톤씩 어획했지만, 2012년 명태 어획량은 약 0.81톤에 그침. 한국에서 명태 수요는 여전히 매우 높기 때문에 국내 유통체인들은 해외공급자를 찾게 됨. 2011년까지 신선명태의 대부분은 일본에서 한국으로 수입되었음. 하지만 후쿠시마-1 원전사고로 인해 일본산 명태의 공급은 실제 중단되었음. 일본산 명태 대체로 캐나다산 혹은 미국산이 될 수도 있었지만, 지금까지도 한국의 이들 국가산 신선명태 수입은 연간 약 20-30톤에 불과함

해외공급의 감소는 대형유통체인들에서의 신선명태 판매에 반영됨. 작년 겨울 한국의 E-mart에서는 신선 해산물 총판매량에서 명태 비중이 22%까지 떨어졌음(2010년 명태 비중은 50.7%임).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한국의 소매업체들은 러시아를 주목함. 전통적으로 러시아어민들은 한국에 냉동명태를 판매함에도 불구하고 2012년에는 러시아산 신선제품 329톤이 한국으로 반입됨. 올해 수많은 유통체인들은 러시아산 명태 구입을 현저히 증가시킬 계획임. 특히 E-mart는 연간 500톤까지 신선명태 공급을 받을 계획이라고 밝힘

▶ 러시아, EU산 어류 관리 강화

러시아 동식물검역국은 유럽연합 국가들에서 들어오는 발트 청어, 연어, 킬카에 대한 관리를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힘. 당국은 어류 속에 해로운 물질 함량이 높은 점을 그 이유로 들고 있으며, 다이옥신과 폴리염화비페닐에 의한 발트해의 오염에 우려함. 러시아와 인접하는 국가들이 발트해에서 청어, 연어, 킬카를 어획하고 있으며 이러한 오염된 어류가 러시아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임

▶ 어류제품에 대한 새로운 검역증명서 양식

동식물검역국 발표에 따르면, 2012년 11월 5일자 유럽연합위원회 규정 N1012/2012에 의하여 음식용 어류제품에 대한 검역증명서(Health certificate) 신규양식이 도입됨. 2013년 3월 1일부터 유럽연합에서 적용되기 시작함. 현재 동식물검역국은 유럽연합회원국 수출용의 어류제품에 대한 검역증명서 신규용지 준비절차를 시작함

2. 수산물 수입동향 및 전망

□ '12년 1-12월간 러시아 수산물(HS코드 03류, 1604, 1605) 수입량은 약 932천 톤으로 전년 동기대비 1.9% 증가

□ 냉동어류

- 냉동어류 수입은 4.7% 감소하여 428.5천 톤 기록. 자국산 열빙어 어획량이 감소하는 가운데 냉동열빙어 수입 증가가 나타남(11.5% 증가한 49.8천 톤). 블루화이팅 수입은 9.3배 증가하여 21.9천 톤까지 늘어남. 어류 및 해산물 수입규모 성장률에 있어서 1위는 블루화이팅이 차지함
- 이와 비해, 냉동청어 수입은 10.3%(11천 톤) 감소하여 95.55천 톤까지 하락, 냉동고등어 19%(20천 톤) 감소하여 85.7천 톤까지 하락, 냉동민대구 10.6% 감소하여 17.6천 톤까지 하락
- 냉동어류 수입구조에서 점유율은 청어(22.3%) 고등어(20%), 킬카 및 스프랫(11.8%), 열빙어(11.6%), 대서양연어와 무지개송어(10.7%), 블루화이팅(5.1%), 정어리와 사르디넬라(2.7%)

□ 어류피레트

- 어류피레트 수입은 2% 감소하여 123.4천 톤 기록. 중국산 틸라피아와 베트남산 팡가시우스 피레트 수입이 소폭(2.1%) 증가하여 39천 톤까지 늘어남. 명태피레트(명태살 같은 것 포함) 27.9% 증가하여 14.2천 톤 기록함. 이에 비해, 청어피레트 수입은 3.9% 감소하여 42.4천 톤까지 하락
- 피레트와 기타어류제품 수입구조에서 연육(surimi)의 비중은 11%(혹은 13.6천 톤), 명태피레트 11.5%(혹은 14.2천 톤), 틸라피아피레트 14.2%(17.6천 톤), 팡가시우스피레트 17.4%(21.4천 톤), 청어피레트 34.3%(42.4천 톤), 기타피레트 11.6% 차지

□ 갑각류, 연체동물 및 기타수생무척추동물

- 갑각류 수입은 7.5% 감소하여 53.8천 톤 기록, 그중, 새우 수입은 8.7% 감소하여 52.2천 톤 기록. 갑각류 수입구조에서 주요점유율을 차지하는 것은 새우로 97%임
- 연체동물 및 기타수생무척추동물 수입은 2% 감소하여 26.8천 톤 기록. 갑오징어와 오징어 수입은 33.3% 감소하여 4.6천 톤 기록, 홍합 수입은 10.5% 감소하여 964톤 기록

□ 신선 혹은 냉장어류

- 신선 혹은 냉장어류 수입은 40.7% 증가하여 180.3천 톤 기록. 신선 혹은 냉장어류 수입 총규모에서 대서양연어와 무지개송어의 비중은 92.6%(혹은 166.9천 톤)이며, 열빙어의 비중은 3.1%(혹은 5.5천 톤)

□ 건조, 염장, 훈제 어류제품

- 건조, 염장 혹은 염수장, 훈제 어류 수입은 16.3% 증가하여 12.5천 톤 기록. 수입구조에서 점유율이 가장 높은 부문은 건조어류제품이며 78%(혹은 9.7천 톤)을 차지함

□ 어류조제품 및 캔제품, 어류제품(HS코드 1604, 1605)

- 수입성장률은 17.49%로 105.8천 톤까지 늘어남. 그중에서 어류로 만든 조제품 및 캔제품은 16.3%

증가한 92.7천 톤 기록, 갑각류, 연체동물 및 기타수생무척추동물로 만든 조제품 및 캔제품은 27.1% 증가한 13천 톤 기록

□ 어분(HS코드 230120), 어유(HS코드 1504)

- 어분 수입은 7.8% 증가하여 49.7천 톤까지 늘어남, 어유 수입은 2.5배 증가하여 1084.3톤 기록

□ 고등어

- 2012년 냉동고등어 수입은 19% 감소하여 85.7천 톤까지 하락한데 비해, 고등어조제품 수입은 0.93천 톤까지 증가함. 냉동고등어 평균수입가격은 14.3% 인하하여 US 1.98불까지 떨어짐. 냉동고등어 대러 주요공급국은 아이슬란드(점유율 41.4%, 35.5천 톤), 노르웨이(21%, 18천 톤), 기타국가(영국, 페로제도 등)(37.6%, 32.2천 톤)

□ 대구

- 대구와 대구제품의 수입은 2012년에 실제 부재했음

□ 연어류

- 2012년 냉장 및 냉동 대서양연어와 무지개송어 수입은 53.5%(74.2천 톤) 증가하여 138.6천 톤에서부터 212.8천 톤까지 늘어남. 냉동 및 냉장 대서양연어와 무지개송어의 수입구조에서 냉장 및 냉동 무지개송어의 비중은 26%(55.5천 톤), 대서양연어의 비중은 74%(157.3천 톤)임. 최근 10년간 처음으로 대서양연어와 무지개송어 수입이 200천 톤 이상으로 집계됨

- 신선 혹은 냉장어류 수입 총규모에서 대서양연어와 무지개송어의 비중은 92.6%(166.9천 톤)을 차지함. 냉동어류 수입 총규모에서 연어류(대서양연어와 무지개송어)는 10.7%를 차지함. 전체적으로, 어류 및 해산물(HS코드 03류) 수입 총규모에서 2012년 냉장 및 냉동 대서양연어와 무지개송어의 비중은 전년대비 17.3%에서 25.8%로 증가함. 칠레에서의 양식 연어류 생산 성장으로 인해 러시아의 냉동 연어류 수입은 향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대서양붉은볼락(rose fish)

- 2012년 냉동 대서양붉은볼락 수입은 전년대비 22.7%(1.1천 톤) 감소하여 3.6천 톤까지 하락, 붉은대서양볼락 피레트 수입은 28.2% 감소하여 0.61천 톤까지 하락함. 냉동 대서양붉은볼락 평균수입가격은 7.7% 인하하여 US 3.74불까지 떨어짐

< 품목 수입통계 >

(단위 : US 천 달러, %)

품목	2011년 1~12월	2012년 1~12월	전년대비(%)	1위		2위		3위		한국 금액
				국가	금액	국가	금액	국가	금액	
수산물 03류	2,326,840.2	2,368,276.7	△1.8	노르웨이	1,065,499.7	중국	228,154.1	아이슬란드	155,736.5	25.7
활어 0301	16,095.4	13,109	▽18.6	노르웨이	8,011.4	핀란드	1,371.7	싱가포르	604.5	-
신선냉장어류 0302	728,138.7	887,279.1	△21.9	노르웨이	773,452.2	페로제도	39,264.8	터키	20,214.8	-
냉동어류 0303	829,288.1	727,815.5	▽12.2	노르웨이	200,047.6	아이슬란드	123,630.8	칠레	108,250.5	25.7
피레트 0304	333,915.3	337,487.6	△1.1	노르웨이	82,916.4	중국	80,167.5	베트남	55,350	-
건조,염장,염수 장,훈제어 0305	60,536.5	64,571.8	△6.7	중국	30,534.7	베트남	12,644.6	타일랜드	11,824.4	-
갑각류 0306	268,582.4	247,018.7	▽8.0	캐나다	93,332.3	중국	60,862.5	덴마크	25,535.7	-
연체동물 0307	90,283.8	90,564.6	△0.3	중국	50,910	베트남	5,232.4	페루	5,165.1	-
수생무척추동물 0308	-	430.4	-	인도네시아	321.6	싱가포르	28.9	스리랑카	24.9	-

3. 타국산(관할지역 생산, 타국수입산) 경합품목 동향

□ 고등어

- 2012년 러시아 고등어 시장규모는 전년대비 18.2%(35.5천 톤) 감소하여 160천 톤까지 하락. 2012년 러시아의 고등어 어획량은 98.9천 톤으로 전년대비 18.4%(22.3천 톤) 감소. 고등어 어획량 감소는 주로 모로코 지역(2.9배 감소한 13.5천 톤 집계)과 페로제도(1.8배 감소한 12.5천 톤)에서 발생됨
- 최근 5년간 러시아에서 고등어 및 고등어제품의 잠재적 시장규모는 평균 약 180~200천 톤으로 집계됨. 시장규모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은 고등어 어획량 감소, 수입 감소, 대외무역가격 인상 때문임

□ 대구

- 러시아에서 대구 소비는 46%(60천 톤) 증가하여 190천 톤까지 늘어남. 2012년 대구 어획량은 전년대비 6.2%(24.2천 톤) 증가한 414.2천 톤 기록. 극동어장에서 대구 어획량은 4.3% 증가하여 72.2천 톤 기록했고, 북부어장(바렌츠해, 발트해, 백해)과 국제협약수역 및 개방국제해역에서는 6.1% 증가하여 342천 톤 기록
- 2012년 어획량 성장과 세계시장에서 대외무역가격 인하 가운데 대구 도매가는 인하함. 극동지역에서 7월~12월초까지 냉동대구 평균도매가는 27% 인하하여 63루블/kg에서 46루블/kg까지 떨어짐. 대구 도매가 하락은 무르만스크 주에서도 나타남. 소매유통에서 소비자가격도 도매가와 마찬가지로 인하함
- 러시아에서 대구 판매는 2012년에 46%(60천 톤) 증가하여 130천 톤에서부터 190천 톤까지 늘어남. 대구 및 대구제품의 연간 1인당 평균소비는 1.4kg까지 성장함. 최근 5년간 대구 및 대구제품의 잠재적인 시장규모는 평균 약 150~170천으로 집계됨

□ 연어류

- 2012년에 러시아에서 연어류는 전년대비 11% 적게 판매됨. 전년대비 60천 톤 감소하여 480천 톤까지 하락함. 연간 1인당 평균 소비량은 3.8kg에서 3.4kg까지 낮아졌음. 하지만 러시아에서 평균통계적으로 연어류 소비 범위는 450~550천 톤대에 있음
- 2012년 연어류 어획량(양식 제외)은 452천 톤 기록함. 2010년 대비 135% 성장, 2011년 대비 87% 성장함

□ 대서양붉은볼락(rose fish)

- 2012년 대러 대서양붉은볼락 공급은 23.7%(8.7천 톤) 감소하여 28천 톤까지 하락함. 2012년 대서양붉은볼락 어획량은 전년대비 4.7% 감소한 약 35천 톤 기록. 러시아의 주요조업장소는 국제협약수역 및 개방국제해역임(28.5천 톤)
- 어획량 감소와 수출 증가는 시장에서 부족현상을 일으키게 함. 러시아에서 대서양붉은볼락의 수요는 30~35천 톤으로 평가됨. 최근 몇 년간 이정도 규모가 시장에서 요구되었음. 수출가격(평균 US 2.15불)과 수입가격(평균 US 3.74불) 간에 큰 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조업지역들에서부터 러시아상점까지의 물류 때문임

4. 동향 분석 [청어]

□ 생산동향

- 2012년 러시아어민들은 대서양청어 및 태평양청어 487.4천 톤을 어획(전년대비 8.2% 증가). 특히 극동어장에서 태평양청어 어획량은 33.7% 증가하여 295.8천 톤 기록. 하지만 세계 및 러시아의 대서양청어 조업은 최근 몇 년간 감소추세임

< 청어 생산량 >

구분	2010년	2011년
청어, 천톤	82.2	87.6
그중:		
- 대서양청어, 천톤	46.5	11.7
- 태평양청어, 천톤	11.2	54.1
- 카스피-흑해청어, 톤	16.5	22

자료원 : 연방통계청

□ 소비동향

- 2012년 러시아에서 청어 및 청어로 만든 제품의 소비는 전년대비 3.2%(16천 톤) 감소하여 490천 톤까지 하락함. 이는 청어 및 청어제품의 수출 성장과 수입 감소로 인해 발생됨
- 러시아는 예전과 마찬가지로 청어에 있어서 세계 1위의 시장임. 최근 5년간 청어 및 청어제품의 소비는 평균 약 550천 톤으로 집계됨

□ 수입동향

< 러시아 냉동청어 수입동향 >

(단위: US 달러, %)

순위	수입국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수입액	수입액	증감률	수입액	증감률	수입액	증감률
1	노르웨이	125,023,201	101,500,680	-18.81	101,217,391	-0.28	86,651,154	-14.39
2	페로제도	0	1,117,118	0.00	5,448,478	387.73	21,573,661	295.96
3	아이슬란드	5,544,570	12,158,665	119.29	15,851,249	30.37	15,279,783	-3.61
4	핀란드	2,485,117	2,388,737	-3.88	3,295,774	37.97	2,878,767	-12.65
5	독일	0	0	0.00	2,412,144	0.00	1,046,148	-56.63
합계		139,530,034	123,036,573	-11.82	159,146,399	29.35	130,035,385	-18.29

자료원 : GTA (*냉동청어 HS코드 030351)

- 2012년 러시아의 냉동청어 수입량은 전년대비 10.3% 감소한 95.6천 톤임. 청어피레트 수입량은 3.9% 감소하여 42.4천 톤이고, 청어조제품 수입량은 2011년 수준에 머물러 0.8천 톤임
- 냉동청어 평균수입가격은 8.7% 인상하여 US 1.37불/kg까지 올랐음. 대러 냉동청어 주요 공급국은 노르웨이(점유율 55.9%, 53.4천 톤), 페로제도(14.9%, 14.2천 톤), 아이슬란드(8.6%, 8.2천 톤)임
- aT 자료에 따르면, 한국산 냉동청어도 러시아로 수입되고 있으며 2012년 수입액은 전년대비 15.2% 증가하여 US 805,395불, 수입량은 전년대비 3.1% 감소한 869,292.50kg로 집계됨

□ 유통현황

- 청어는 냉동 포장 판매도 되지만 주로 염장, 훈제, 캔제품, 조제품으로 가공되어 유통되고 있음. 캔제품 가공 시에 순수하게 생선만 저장처리하거나, 어유, 채유, 토마토소스 등과 함께 저장처리

하기도 함. 또한 청어피레트를 염장하여 플라스틱 용기나 진공 팩에 포장 판매하고 있음

- 플라스틱 용기 포장된 청어피레트는 전통적인 방법으로 채유에 절임, 향신료, 달 등 가미하여 오일에 절임, 마요네즈 버무림, 레드와인, 토마토소스, 겨자소스에 절임, 레몬·파프리카 등과 함께 마리네이드 등 다양한 형태로 판매됨. 나무통 속에서 염장한 청어를 무게를 달아 판매함
- 어획량 감소, 수출증가, 수입 감소로 파생된 시장 밸런스의 불균형은 도매 및 소비자가격에 반영됨. 2012년 러시아어류시장에서 소비자가격 성장을 측면에서 살펴보면 염장청어피레트 8.91%, 냉동청어 7.79%, 염장청어 7%, 청어조제품 4.42%를 보임

□ 시사점

- 2009~2012년간 세계 및 러시아의 대서양청어 어획량 감소, 청어수출의 급성장, 청어수입의 감소가 이루어짐으로써 러시아 국내 청어시장규모 축소로 귀결되었고 이는 가격인상에도 반영됨. 2012년에도 국내청어시장 감축현상은 계속 지속됨
- 이와 같은 현상은 청어뿐만 아니라, 고등어, 열빙어 등을 포함하는 부어(pelagic fish)시장의 공통점이며, 러시아 국내 부어시장은 19.3%(180천 톤) 축소되어 760천 톤까지 줄어듦

<저작권자 © aT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kati.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